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

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라

꿈 지 모 _ 에코페미니스트 공동체⁰¹

●● 생리대를 단속·규제하는 사회: 생리가 질병인가?

얼마 전 대안 생리대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지난 3월, 캐나다로부터 대안 생리대를 수입해 판매하던 한 업체가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판매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판매를 해오다가, 6월에 일부 다른 업체들이 허가 없이 먼 생리대를 판매하고 있다며 식약청에 진정을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에 식

01. 꿈지모('꿈꾸는지렁이들의모임' 약칭)에서는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대안 생리대 규제와 관련한 논란들을 지켜보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연대 활동에 참여하면서 대안 생리대에 관한 문제의식에 대해 토론한 바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모임에서 생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여 꿈지모 회원이자 사단법인 '또하나문화'에서 일하고 있는 최이윤정 씨가 썼다.

약청은 10여 개 업체에 대해 판매 금지·약식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⁰² 이로 인해 대안 생리대를 판매하는 여러 업체들은 “현행 약사법상 의사나 약사, 화학 전공자가 제조관리자를 맡도록 돼 있지만 이는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일회용 생리대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대안 생리대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헌법 소원 및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준비하는 등의 대응을 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대안 생리대의 판매와 사용을 둘러싸고 일부 환경 단체와 여성 단체는, 식약청의 조치가 국가가 생리대를 하나의 ‘의약외품’⁰³으로 간주함으로써 여성의 생리를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고 의료화하여 관리·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내 왔다. 여성의 재생산 과정인 임신과 출산이 근대적인 의료 시스템 속으로 통합되면서 병원에서 진료의 대상이 되어 왔듯이,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시작된 대안 생리대 운동이 식약청의 허가과 관리라는 이름 하에 또 다른 규제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식약청이 대안 생리대를 또 다른 규제 대상으로 삼기에 앞서, 오히려 이제까지 여성주의자들이 주장해 왔던 기존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회용 생리대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침묵하고 있는 생리대 제조 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가 실질적인 소비자인 대다수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기업에게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많은 여성들이 사용하는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성과 위험성 문제는 여러 번 지적되어 왔다.⁰⁴ ‘초박형’, ‘울트라 슬림’이라는 이름으로 생리대의 강력한 흡수력을 강조하는 사이에 여성의 몸에 어떤 화학 성분이 담고 있는지,

02_ “대안 생리대, 본격 상업화, “어, 이게 아닌데” (『한겨레』 2005년 10월 12일자 기사), “식약청-환경 단체 ‘대안 생리대’ 논란”(『문화일보』 2005년 7월 11일자 기사).

03_ 현재 생리대는 다음과 같은 약사법에 의거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의약외품’이라 함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위의 2 또는 3에 규정하는 사용 목적을 겸하여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 1. 12, 2002. 12. 30]

1.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3.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이와 달리, 여성용 생리대와 거의 유사한 유아용 기저귀의 경우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안전 검사만 거치면 누구나 제조·판매할 수 있다(『문화일보』 2005년 7월 11일자 관련 기사).

04_ 이에 대해서는 꿈지모(2003), 『꿈꾸는 지렁이들』, 환경과생명에 수록된 이윤숙의 글, 『생리대가 여성의 건강을 망친다』를 참조할 것.

여성의 몸이 일회용 생리대의 화학 성분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회용 생리대의 성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채, 자궁내막증·탐폰증후군(독성 쇼크 증후군: Toxic Shock Syndrome)과 같은 일회용 생리용품 사용으로 인한 여성 질환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생리대 제조사들이 한방 생리대나 녹차 생리대와 같이 천연 성분을 재료로 한 신제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기존의 일회용 생리대가 가진 한계(바로 화학 제품 덩어리라는!)를 그대로 반증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생리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회용 생리대가 강조하는 편리함을 선택하기보다, 내 몸에 안전한 생리대를 스스로 만드는 대안 생리대 사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생리대 산업의 대안으로 여성들이 선택한 하나의 운동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이 여성들에게 점차 확산되면서 대안 생리대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자, 이를 상품으로 판매·유통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업체들이 늘어날수록 자연히 업체들 간의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애꿎게도 업체들 간의 고발과 식약청 단속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일회용 생리대의 문제는, 생리대 산업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은 채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 관련 정보가 기업의 비밀로서 철저히 보장·규제·관리된다는 데 있다. 이에 반해 여성들이 이제 막 자율적으로 나눠 쓰기 시작하고 있는 대안 생리대에 대해서는 쉽게 질병과 관련된 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이 사용하는 생리대를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여겨 단속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여성의 생리가 질병으로, 생리대 역시 질병과 관련된 의약품으로 규정되어 관리 대상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 대안 생리대, 등장과 우려 사이에서

사실 우리 주위에 이미 많은 여성들이 대안 생리대에 대해 들어보거나 직접 만들어본 경험이 있다.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대안으로 면 생리대를 사용하

자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여성 단체·환경 단체 등의 소모임이나 각종 행사에서 대안 생리대 만들기를 하거나 이를 선물하는 등 대안 생리대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일회용 생리대를 당연하게 사용해오던 습관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동안 간과해 왔던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또한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함이나 안 좋은 느낌은 여성 자신의 몸과 생리를 주체적으로 사고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생협과 인터넷 등 먼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통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주변에서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기존의 일회용 생리대보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주위에서 사용해보니 좋다더라’는 이야기들은 ‘그럼 나도 한번 사용해볼까’ 하는 마음을 먹게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쪽에서 불고 있는 대안 생리대 ‘열풍’과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많은 여성들 사이에는 괴리가 남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대안 생리대는 일부 그런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지, 일반 여성들이 사용하기에는 거리가 먼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적어도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성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대안 생리대는 생리혈이 새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 생리대를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면서 의아해하거나, 바쁘게 활동하는 많은 여성에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건 다소 무리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여성 단체와 환경 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안 생리대가 보급돼 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안 생리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에 대안 생리대의 판매·유통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일회용 생리대의 규격화된 방식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안 생리대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무엇보다도 일회용 생리대가 여성의 건강에 그다지 이로울 게 없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안으로서의 대안 생리대는 우리에게 낯설다. 대안 생리대가 완벽한 흡수를 자랑하는 일회용 생리대와는 달리 뭔가 불편할 것이라는 편견이 강하고, 대안 생리대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은 충

분히 공유되거나 이야기된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에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사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 생리나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일종의 금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대안 생리대의 보급과 상업화 논란 등 앞으로 대두될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검토에 앞서, 이를 사용하는 여성들의 경험을 들어보고자 한다.⁰⁵ 이를 위해 현재 최소 6개월 이상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들어보았다. 이들의 경험을 통해 대안 생리대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여성 자신에게, 그리고 여성주의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대안 생리대를 사용해야 한다’,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구호 식의 말을 백 번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듣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 대안 생리대의 경험 1: 몇 가지 오해와 편견에 대하여

먼저 얘기할 것은 대안 생리대에 대한 몇 가지 편견과 오해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안 생리대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불편하고’ ‘샐까 봐 두렵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주저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일 텐데, 실제로 사용하는 여성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용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대안 생리대가 셀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몸에 친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회용

05_ 이 글에서 인터뷰한 여성들은 모두 5명이고, 대부분 1년 이상 대안 생리대를 사용한 20대 여성들이다. 이들은 환경 단체나 여성 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들로서, 주위에서 관련 행사를 통해 대안 생리대를 처음 접하고 난 뒤 사용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고 한다. 인터뷰에 응해준 초록정치연대의 사마르, 몽, 신과 정토회의 효진, 그리고 나머지 다른 1명에게 감사한다.

생리대도 썰 때가 많잖아요. 대안 생리대 사용하다가 썰 수 있죠. 저도 처음에 대안 생리대 사용할 때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어느 시점에서 갈아줘야 한다는 감각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생리가 새고 있다는 느낌이 오지 않을 정도로 편하더라고요. 일회용 생리대는 냄새로 안다거나 찝찝한 느낌으로 갈아줘야 한다는 걸 알게 되는데, 대안 생리대는 그런 느낌이 없을 정도로 되게 편해서 썼던 것 같아요. 한두 달 지나면 내 몸에 더 친숙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똥)

일회용 생리대에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안 생리대가 약간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뷰한 여성들은 오히려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면서 불편함보다 내 몸에 대한 친숙함이 더 생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대안 생리대의 좋은 점이라고 말한다. 그냥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자신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적당히 교체해 준다면 일상 생활에도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한 사용자는 생리 양이 많아서 대안 생리대와 일회용 생리대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실제로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 중에서 일회용 생리대를 같이 사용하는 여성들이 많으며, 이들은 처음부터 대안 생리대를 100%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외출 등 구체적인 상황이나 생리 양 등을 봐서 자신이 적절하게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들 중에는 번갈아 사용하다 보면 대안 생리대 경험이 좋기 때문에 사용 횟수가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된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일회용 생리대를 오래 사용하면 아프거나 이물감을 느끼는 것에 비해,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착용감이 좋다는 지적도 한다. 그냥 천으로 되어 있어서 흡수력은 떨어질 것 같지만, 일회용 생리대를 내내 사용하면 아프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데 비해 대안 생리대는 오래 착용하고 있어도 부착감이 전혀 없고 살이 짓무르거나 따가운 느낌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냥 속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부착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생리혈이 나오는 느낌이 잘 안 나서 썬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대안 생리대가 간혹 새는 문제는 대안 생리대 자체의 단점이라기보다 너무 편한 착용감과 일회용 생리대에 익숙한 여성들이 거기에 익숙지 않은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또 한 가지,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 중의 하나는 생리혈의 냄새가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생리 중에 여성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불쾌한 냄새인데, 이는 여성이 생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화장실 가면 생리혈의 불쾌한 냄새가 나고 색깔도 까맣게 돼가지고 그 느낌이 되게 싫었어요. 내 몸에서 나온 건데도 내가 되게 불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면 그게 없다는 게 너무 좋아요.”(몽)

“일반 생리대는 화학 냄새가 있어서 무슨 냄새가 나잖아. 생리 기간에는 나한테도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게 일회용 생리대 냄새더라구. 대안 생리대 사용하면서는 냄새가 전혀 없는 거야. 나는 그게 원래 피 냄새라고 생각했거든.”(효진)

여기서 생리혈의 냄새라고 생각했던 불쾌한 냄새의 정체는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회용 생리대의 냄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일회용 생리대를 일정 시간 이상 착용하거나 자주 갈지 않으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를 생리혈에서 원래 나는 냄새인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대안 생리대를 사용한 사람들은 사용 이후로 생리 냄새나 불쾌함이 신기하게도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불쾌한 냄새의 원인으로 일회용 생리대의 각종 화학 첨가물이 피와 섞여 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⁰⁶

●● 대안 생리대의 경험 2: 생리통이 사라지다

다음으로 얘기할 것은,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면 생리통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생리하는 여성들 중 50% 이상이 생리통에 시달릴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생

06_ 피자매연대 게시판(www.bloodsisters.gg.gg) 참조.

리 기간 동안 생리통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러한 생리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이 대부분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심하면 병원 치료를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생리통이 일회용 생리대와 관계가 있다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면서 생리통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선 양이 줄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생리통이 있으면서 생리 기간 내내 밀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심하고 그랬는데, 배가 아픈 거 말고 아래쪽으로 자궁을 아래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없어진 거예요. 혹시 우연인가 싶어서 계속 쓰게 됐는데, 그게 둘째달도 셋째달도 계속 없었는데, 일회용 생리대를 한 번 쓰게 됐더니 다시 또 그런 거예요. 그거 말고 여름 내내 보면 닿는 부분이 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좀 덜하고요. 배가 아픈 것도 옛날에는 첫째 날 굉장히 아팠는데, 요즘에는 거의 모르고 넘어갈 정도예요. 옛날에는 매달 꼬박꼬박 진통제를 먹어야 했다면, 대안 생리대를 사용한 이후로는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게 되게 신기하죠. 이걸 그냥 제 생각인데, 일회용 생리대는 많이 흡수하려고 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흡수제 같은 걸 강력하게 써서 잡아당기는 게 여성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사마르)

“예전에 생리통으로 어떤 경험이 있었냐 하면, 생리통 때문에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고 허리도 펼 수 없는 그런 느낌, 서 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지도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거 다 아시죠? 그때 애들이 택시 태워줘 가지고 집에 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대안 생리대 사용하고 나서는 생리통이 진짜 딱 떨어지는 게 진짜 신기했어요.”(몽)

이러한 내용은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는 많은 여성들이 하는 얘기들로서 공공연히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일회용 생리대 표지로 쓰이는 레이온 식물 섬유, 인조 섬유, 방수막에 쓰이는 필름류의 화학 성분 등으로 인해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피부염이나 습진 등 각종 질환을 호소하던 여성들이 면으로 직접 생리대를

만들어 쓰면서 피부염이 사라졌다고 한다.⁰⁷

물론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일회용 생리대와 생리통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한 여성들과 대안 생리대를 사용한 여성들이 직접 몸으로 느낀 변화 과정은 어떤 과학적 잣대와 객관적 평가보다도 가장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대안 생리대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 둘씩 대안 생리대를 찾게 되는 현상은 일회용 생리대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반증하는 사례로 보인다.

● 대안 생리대의 경험 3: 생리와 월경을 즐겁게 긍정하다

한편, 대안 생리대를 빨면서 생리와 월경을 긍정적 경험으로 느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것 외에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대안 생리대를 빼는 경험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는 즐거움 중의 하나가 그것을 만들고 빨면서 사용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한다.

“근데 먼 생리대를 쓰면서 제일 압권은 뭐냐면 그걸 빼는 거에 있어. 완전히 쾌감이지. 나는 이걸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빼는 데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 우선 빨리 빨아야 되잖아. 빼자마자 물에 담귀 놔야 해. 그러면 처음에 넣자마자 담근 물이 빨개져. 이걸 보고 처음엔 거부감이 약간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물이 이렇게 빠지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피에 대한 거부감이 있잖아. 자기 피인데도 거부감이 있지. 그런데 생리대 피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내 피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더라구. 우리는 일회용 생리대를 쓰면 곧바로 싸서 버려 버리잖아. 그것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아이 더러워’ 하게 되잖아. 근데 이걸 털어서 말리고 삶아야 하거든. 그 과정에 굉장한 쾌감이 있어.”(효진)

07_ ‘대안 생리대, 직접 만들어요’ <<오마이뉴스> 2005년 10월 30일자.

일회용 생리대와 대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의 과정은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일회용 생리대는 사용한 후 바로 폐기 처분해야 할 대상이지만 대안 생리대는 빨아서 재활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얼핏 작은 차이로 보이는 이러한 행동이 생리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얼마나 중요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리대를 사용한 후 바로 휴지에 싸서 버리는 과정에서, 내 몸에서 나온 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저 불순물로 간주하고 더럽게 여기게 된다. 그러나 대안 생리대는 피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함으로써 불순물이 아니라 마치 눈물과 같이 내 몸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몸의 일부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대안 생리대를 쓰는 과정에는 생리혈을 단지 제거한다기보다 그것을 통해 생리를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생리와 내 몸이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주기로써, 내 삶의 과정으로서 생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다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는 대안 생리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안 생리대를 친숙하게 “요놈들, 애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너무 예뻐서 사용해보고 싶었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대안 생리대는 이들에게 그저 하나의 물건이나 소비품이라기보다 애정이 담긴 대상으로 여겨진다. 대안 생리대는 친한 친구에게 선물하는 소중한 물건으로서 그것을 만들고 선물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판매·사용되는 일회용 생리대와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 물건이 되고 있다.

이렇듯 대안 생리대에 갖는 남다른 애정은 단지 생리대 자체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생리는 여성의 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고통스러운 일이자 그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르고 간편하고 깨끗하게 그 시간을 넘겨야 하는 것 정도로 여기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을 차별하는 기제로 만들어온 남성 중심의 사회 문화에서 비롯된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생리는 (언젠가) 아이 낳을 여성이자 출산하는 몸으로서만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이다. 바로 출산 가능성이 있는 몸임을 보장하는 것이 생리와 월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는 권리의 보장이 아닌 ‘모성 보호’라

는 이름으로 (남성) 사회의 보호를 받아 왔던 것이다.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차별 혹은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진 여성의 생리를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경험을 통해 긍정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은 기존의 생리를 비하하거나 지나치게 찬미하는 왜곡된 문화에서 벗어나 여성이 주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금기를 넘어 여성주의 담론의 변화와 확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안 생리대의 사용에 대해, 일회용 생리대의 등장이 여성의 활동성을 보장해 주었는데 대안 생리대를 쓰는 것은 이러한 여성 운동의 성과를 다시 과거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일회용 생리대의 역사가 마치 여성의 사회 진출과 궤를 같이 하는 것처럼 보기도 하는데, 김벌리 클락이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일하는 여자 간호사를 위해 붕대를 이용해 개발했다는 최초의 코텍스 생리대의 경우를 보더라도, 당시 일회용 생리대는 모든 여성이 아니라 일하는 여성을 겨냥해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⁰⁸

현재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자는 움직임은 두고 여성의 활동성을 해치거나 모든 여성들이 생리대를 다시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식의 과거 회귀성 운동으로 비판할 일은 아닐 것이다. 이는 마치 여성의 금연 운동이 ‘흡연=여성의 자유’로 여겨져 왔던 초기 여성 운동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다시 여성의 모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다시 말해 반여성주의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금연과 마찬가지로 대안 생리대 운동은 이제까지 활동성과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간과해 왔던 여성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는 동시에, 여성들이 일회용 생리대의 대량 생산·대량 소비 방식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하면서 ‘다른 것’을 선택할 권리를 찾고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또 다른 차원의 여성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는 여성 자신뿐 아니라 생리와 월경에 대한 인식을 가족과 사회의 영역에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는 남편이 아내가 생리대를 훑고 카트에 던지는 것을 보고 가려주면서 “손만 잡아

08. 매너, “우리의 월경, 우리가 관리한다-왜 대안 월경대인가”, 피자매연대 사이트(www.bloodsister.or.kr) 참조.

도 얼굴이 빨개지던 여자였는데 아내도 이제 어느새 아줌마가 다 됐습니다.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라는 내레이션이 뒤따르는 어느 광고⁰⁹가 얼마 전 ‘2005 대한민국 광고 대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여성과 생리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생리대 하면 ‘까만 봉지에 쌓여진’ 이미지가 일반적이고, 아직도 생리대를 사러 가는 게 쑥스럽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러나 대안 생리대의 사용은 이러한 전형적인 관념에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다. “예전에는 딸이 혹은 누나나 동생이 생리하는 것을 집안에서 철저히 감춰야 했는데,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생리대를 빨래통에 담가두고 한꺼번에 빨다 보니 그렇게 숨기던 모습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이제는 생리대를 화장실에다 담가두는 일이 자연스럽게”고 할 정도로 가족 내에서 여성의 생리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바뀌었다고,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는 한 여성은 말한다. 또한 초경을 하는 딸에게 선물로 대안 생리대를 준다거나, 온 가족이 대안 생리대를 같이 만드는 워크샵과 프로그램이 생겨서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월경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실천하게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는 작은 실천은 보이지 않는 담론과 사회적 고정관념을 바꿔내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안 생리대를 알면서도 실제로 경험해보지는 못한 데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은 때로는 작은 실천의 가능성을 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는 마치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일상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편견과도 같다. 사실 요즘 웰빙이 유행처럼 번지는 시대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먹는 것은 그리 큰 부담이 아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생태 운동으로서 실천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실천하기는 어려운 먼 얘기처럼 들리는 무거움과 엄숙함이 있다.

채식을 함으로써 내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이것이 곧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으로 이어지듯이,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는 하나의 작은 행위는 자신의 생활 자세를 변화시키고 다른 모든 생태적인 실천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대안 생리대를 빨고 남은 물을 거름으로 활용하여 화분을 키운다는 일본의 한 지역 운동가의 경험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09_ 삼성생명 기업 PR '인생은 길기에' 시리즈 중 어머니 편

● 여성들 사이의 차이와 지속 가능한 생태 운동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 개인의 경험은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의 사적인 것으로 간주돼 왔다. 공식적 영역에서 삭제되고 배제된 여성들의 경험을 중요한 경험으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확장해 가는 것은 여성주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대안 생리대를 사용한 이야기에 대한 일상적인 접근은 현재 대안 생리대로 인해 불거지기 시작한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경험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일이다.

대안 생리대 사용이 여성의 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자신의 몸과 에너지 순환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해서 모든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회용 생리대를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이들을 반생태적이고 반여성주의적이라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또한 대안 생리대를 직접 만들어서 쓰지 않는다고 해서 덜 생태적이라고 탓할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처한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맞춰서 대안 생리대의 취지에 맞는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일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기 시간이 많고 만들 재료가 있는 여성이라면 대안 생리대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양육과 가사 일을 책임져야 하는 직장 여성에게 대안 생리대는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들고 팔고 말려야 할 일을 생각하면 가사 노동의 부담만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 생리대가 상품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많은 상품이 나올수록 가격 면에서도 저렴해지고, 이는 곧 보다 많은 여성들이 대안 생리대를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품화로 이어지면서 ‘대안’ 생리대가 추구하는 애초의 취지를 상실하고 ‘대안’이 빠져 버린 채 생리대 본연의 상품 기능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일이다. 또한 대안 생리대의 재료가 되는 유기농 면제품의 확대 보급을 위해 가격 면에서 저렴한 유기농 제품을 제3세계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대안 생리대를 다른 나라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반생태적인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안 생리대 운동은 여성들 간의 차이와 생태적 실천이라

는 보다 복잡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지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 생리대 운동은 그 첫발을 떤 것일 뿐이다. 여기에 여성주의의 차이의 정치학과 생태주의 간의 복잡한 맥락들을 풀어가면서 '여성의 생리=여성의 모성'이라는 획일적인 담론을 지양하는 방식으로 생리와 월경의 사회문화적 금기를 깨 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김영미**